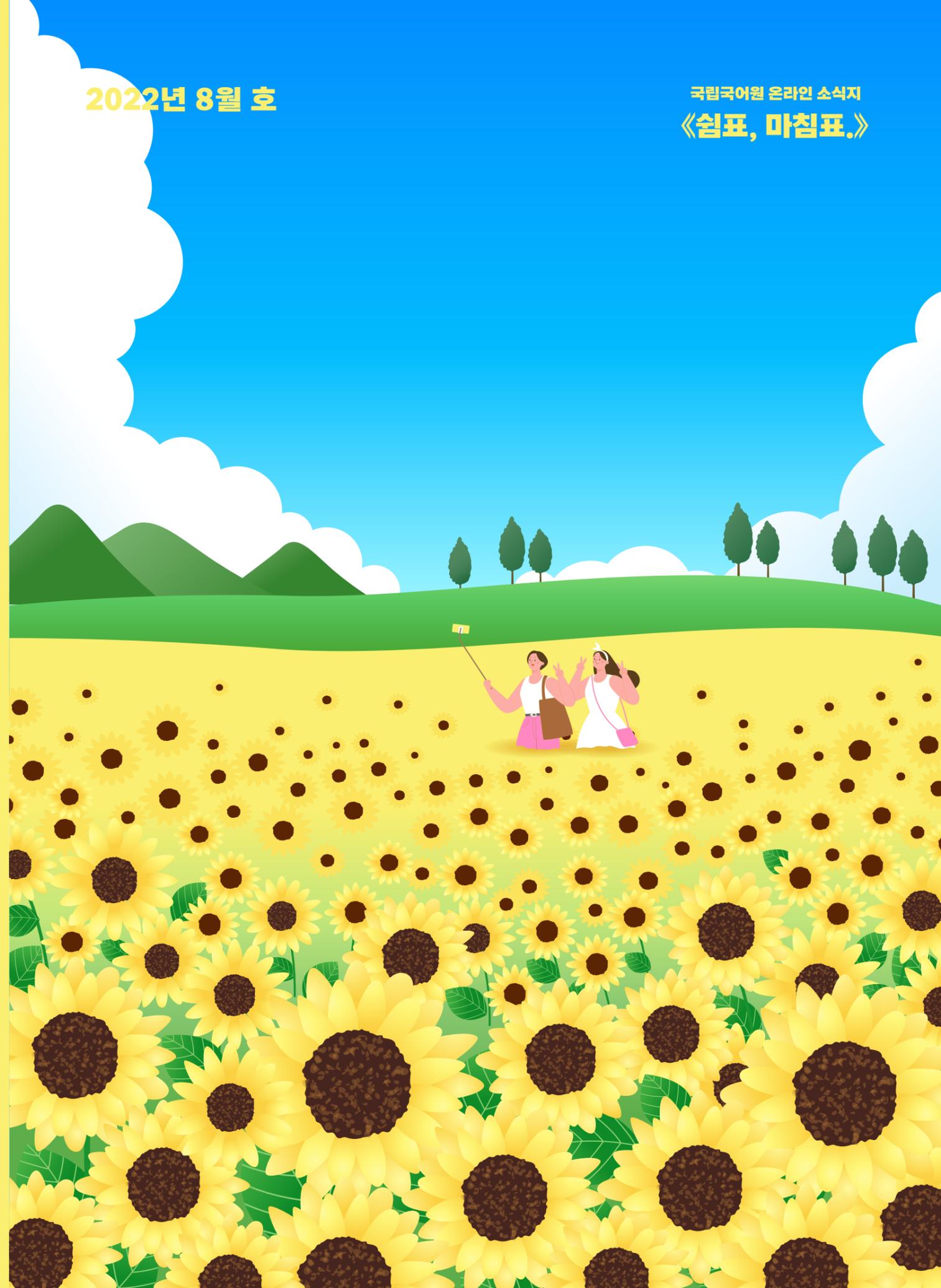


2022년 8월 호

국립국어원 온라인 소식지  
《심표, 마침표.》



국립국어원 온라인 소식지  
심표, 마침표.



# 목차

국어 배우기\_뭉치가 알려주는 국어 말뭉치  
**말뭉치가 음성 인공 지능 연구 개발에 어떻게 활용되나요?** ..... 3쪽

국어 배우기\_문장 다듬기  
**햇갈리는 외래어 표기를 알아봐요!** ..... 9쪽

국어 알리기\_살아 숨 쉬는 지역어  
**이문구 소설 둘러보기** ..... 11쪽

국어 알리기\_이름이가 전하는 국어 소식  
**‘로컬 소식’은 ‘현지 조달’로** ..... 13쪽

국어로 바라보기\_한국어 교육, 그리고 우리  
**한국어 책에서 보는 한국의 삶** ..... 15쪽

국어로 함께하기  
**우리말 풀기** ..... 43쪽

국어 배우기\_아 다르고 어 다른 우리말  
**감사하다와 고맙다, 같은 듯 다른 쓰임새** ..... 21쪽

국어 배우기\_문장 다듬기  
**햇갈리는 띄어쓰기를 알아봐요!** ..... 25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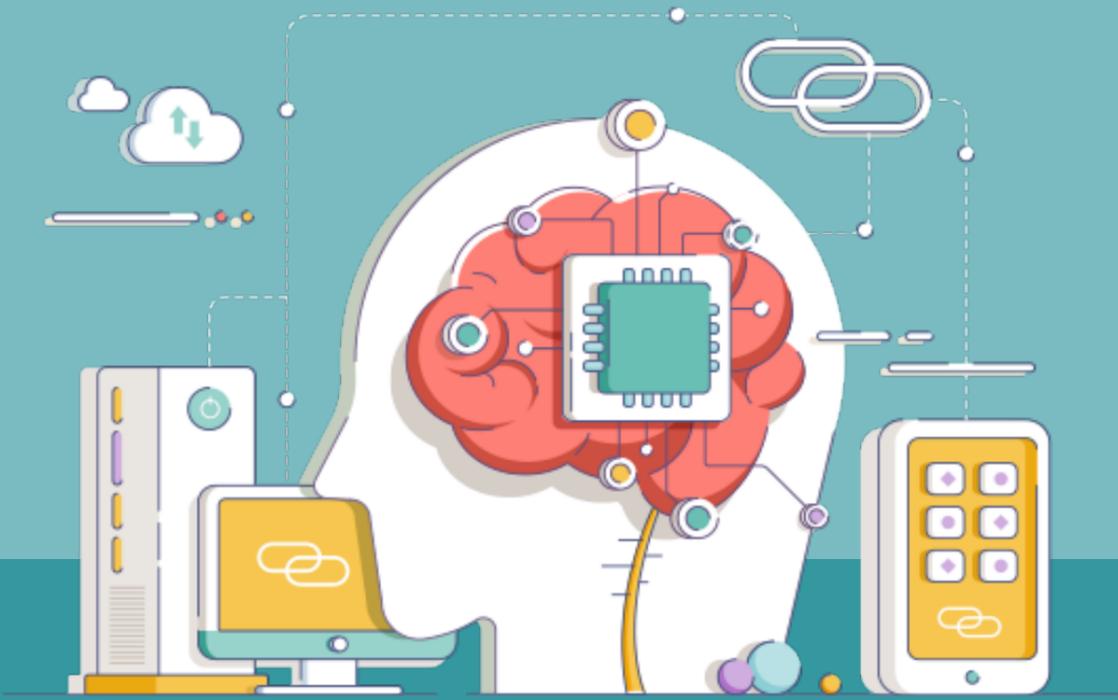
국어 알리기\_살아 숨 쉬는 지역어  
**김원일 소설 둘러보기** ..... 27쪽

국어 알리기\_이름이가 전하는 국어 소식  
**‘네버 코비드’는 ‘코로나 비감염’으로** ..... 29쪽

국어로 바라보기\_우리말 속 차별 언어  
**특정 계층과 관련된 표현** ..... 31쪽

국어 바라보기\_우리말, 그리고 사람  
**알기 쉬운 공공언어 문화를 꽃피우기 위하여** ..... 33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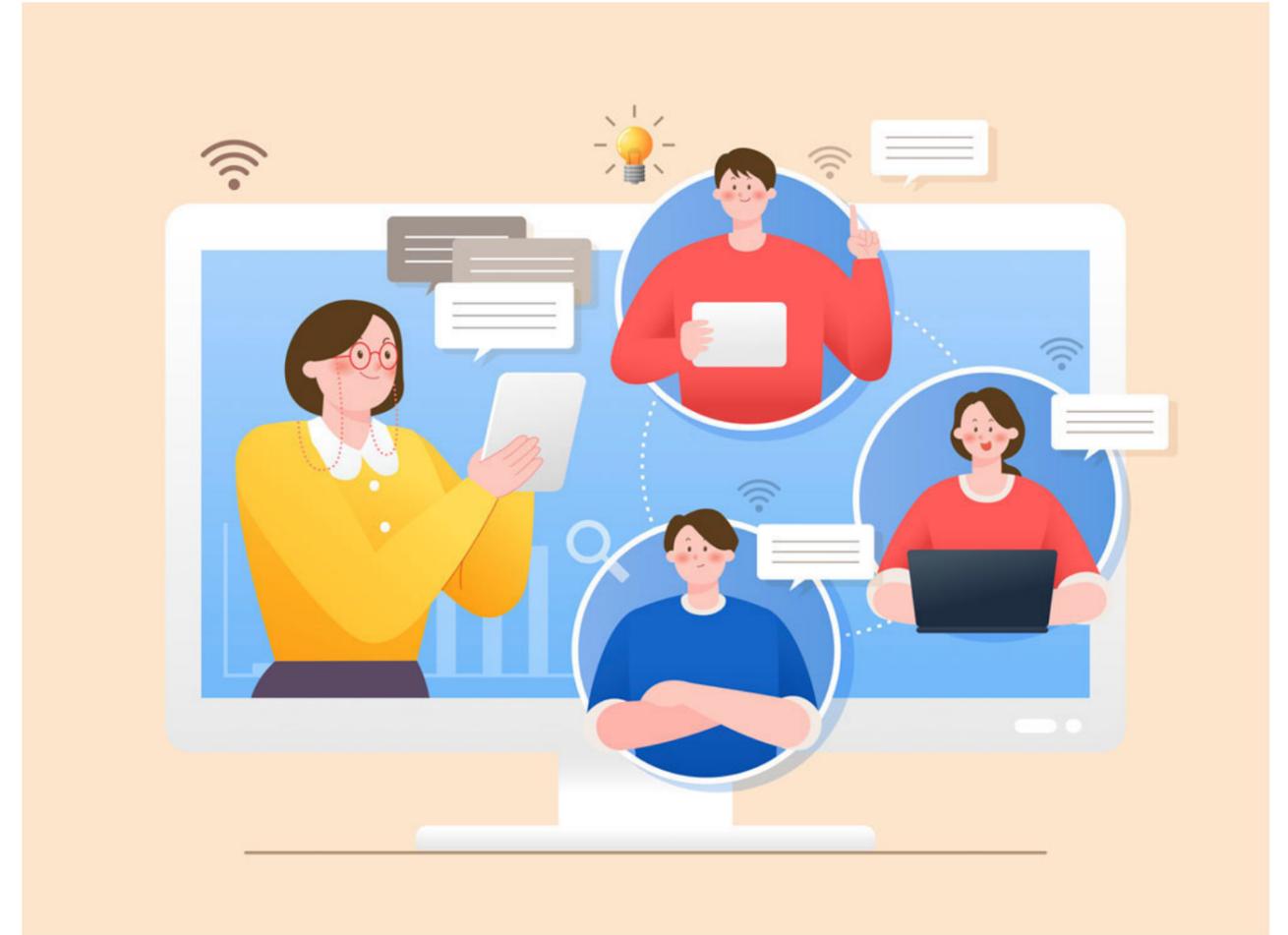
국어로 함께하기  
**우리말 풀기** ..... 47쪽



# 말뭉치가 음성 인공지능 연구 개발에 어떻게 활용되나요?

마인즈랩 안준환 부사장

우리가 의사소통을 할 때, 글과 문서로만 하지는 않잖아요? 일상생활에서는 음성으로 훨씬 더 많이 의사소통을 하고 있지요. 이런 음성에는 언어적인 의미 외에도 억양, 성량, 속도, 어조 등과 같은 준언어적 표현도 포함되어 있지요. 물론, 음성 외에도 표정이나 몸짓과 같은 비언어적인 표현도 많이 활용하지요.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하면서 음성 관련 연구와 프로그램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특정 분야에서는 이러한 결과물들이



전통적으로 하나의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는 처음부터 사람이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목적·기능을 잘 분석해서 설계하고, 사람이 프로그램 언어로 설계한 내용을 프로그램에서 잘 돌아가게끔 구현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요, 아래 그림의 “Rule”에 해당하는 부분이 프로그램인데 이 부분을 전문가인 사람이 노력해서 만드는 것이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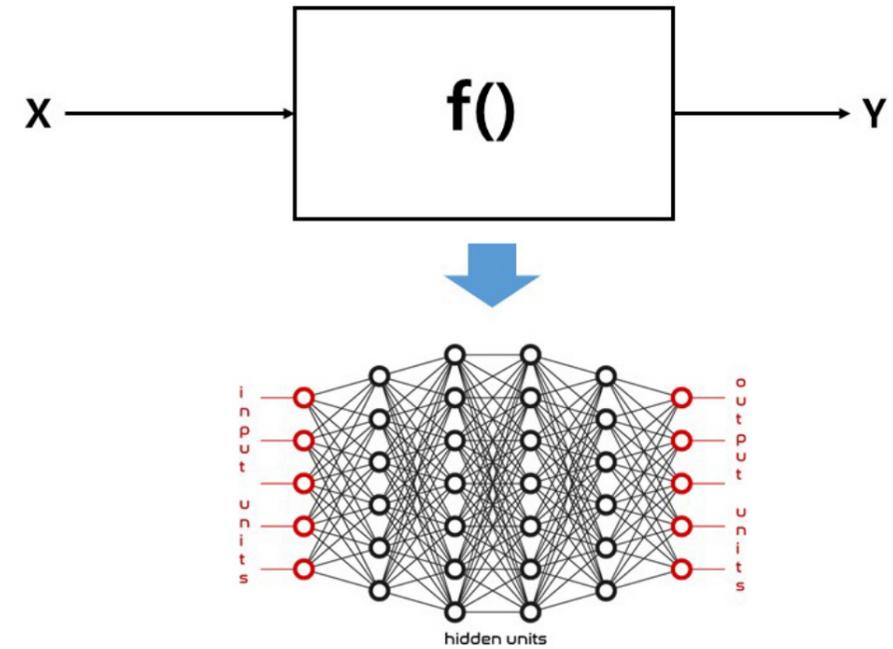


아래 그림과 같이 목적하는 기능을 잘 설계하고 이를 프로그래밍 언어를 활용해 개발하는 방식이지요. 당연히 사람이 모든 경우의 수를 예상하고 그에 따라 적절히 처리되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완성도 높은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겠지요?



```
def add5(x):
    return x+5

def dotwrite(ast):
    nodename = getNodename()
    label=symbol.sym_name.get(int(ast[0]),ast[0])
    print ' %s [label=%s]' % (nodename, label),
    if isinstance(ast[1], str):
        if ast[1].strip():
            print ' %s', '% ast[1]
        else:
            print ']'
    else:
        print '["',
        children = []
        for n, child in enumerate(ast[1:]):
            children.append(dotwrite(child))
        print ' %s -> {' % nodename,
        for name in children:
            print '%s' % name,
```



〈딥 러닝의 개념적 모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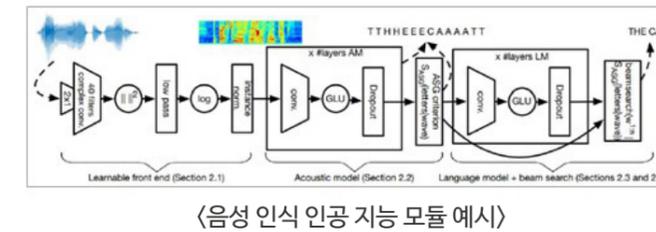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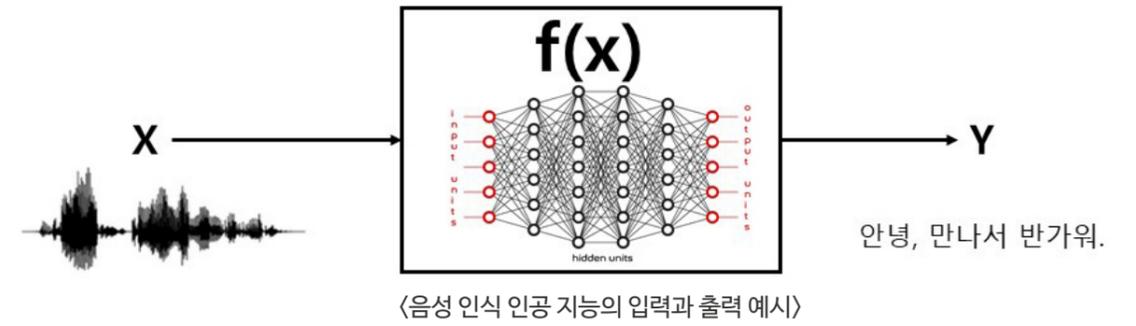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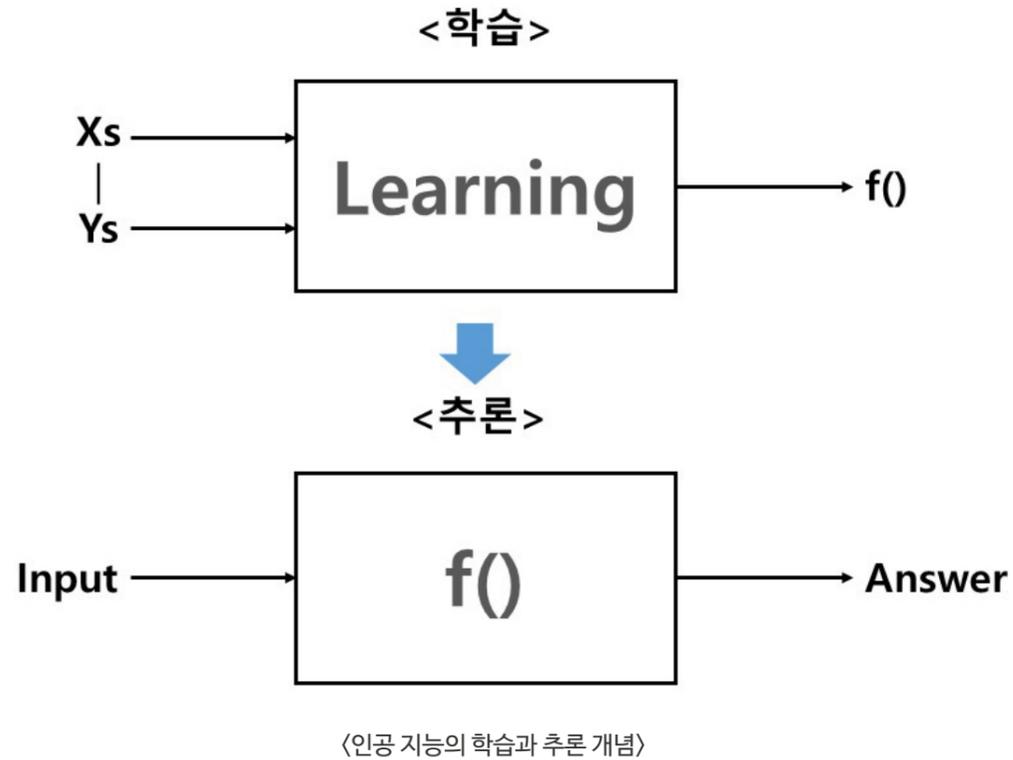
그런데, 인공지능 기술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요. 아래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학습(Learning)”이라는 과정을 통해 사람의 노력이 없이 오롯이 기계가 자동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만들어진 인공지능 프로그램에 학습 데이터와 같은 자료의 입력값을 주면 출력값을 추론(학습 결과 만들어진 프로그램의 처리 과정)해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결과를 내놓게 돼요.



인공지능이 학습을 해서 프로그램을 만드는 방식은 수많은 데이터 즉, 수많은 입력값과 출력값을 제시하고 왜 이러한 입력값에 저러한 출력값이 나왔는지를 가능한 한 모든 경우의 수를 대입해 가며 알아맞히는 과정을 반복하는 거예요. 컴퓨터가 사람보다 뛰어난 것은 빠르다는 것과 쉬지 않는다는 것이니, 이런 일을 잘할 수 있겠죠?

여기서 학습 데이터 즉, 말뭉치의 중요성이 매우 중요해요. 잘 정제된 일관성 있는 대량의 학습 데이터로 학습을 하게 된다면 결과적으로 음성 인공지능의 성능이 좋아진다는 것이죠. 자, 학습이라는 과정을 마치게 되면 드디어 프로그램이 만들어졌겠지요? 그렇다면, 인공지능이 만든 이 프로그램(모델)에 입력값을 주면 출력값을 산출하게 돼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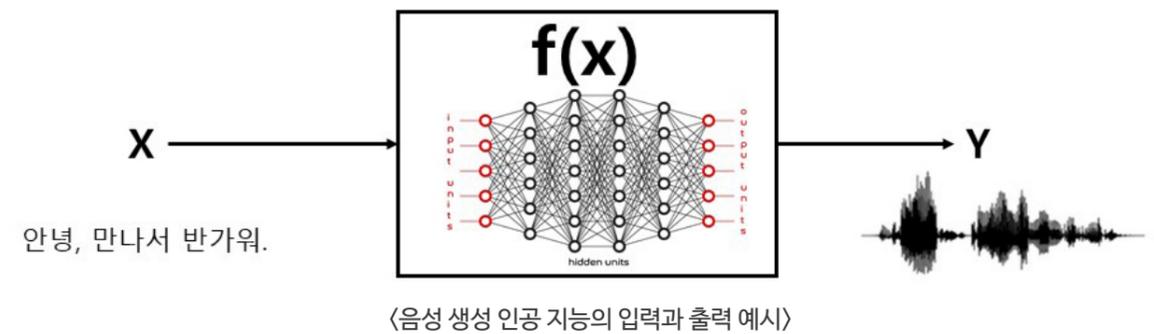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고등학교 수학 시간에 배웠던 함수와 같다고도 볼 수 있어요. 「y=f(x)」 많이 보셨던 것이지요? 저도 그랬듯이 많은 사람이 골치깨나 앓았을 거예요. 프로그램을 함수로 본다면 아래와 같은 모습인데요, 이 함수를 구성하는 인공지능의 모습이 개념적으로 그림 아래쪽에 있는 것과 같다고 해요. 입력과 출력 사이에 여러 계층으로 이루어진 것들이 보이네요. 이런 모습이 우리의 신경을 구성하는 뉴런과 닮았고, 여러 계층이 있어서 구조가 깊다고 인공지능을 연구하던 사람이 생각했어요. 그래서 심층 신경망(Deep Neural Network)이라고 이름을 지었지요. 그리고, 심층 신경망이 학습하는 과정을 딥 러닝(Deep Learning)이라고 해요.



성능이 좋은 인공지능을 활용해 단순, 반복되는 일을 자동화하고 대신 가장 중요한 자원인 사람은 보다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일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겠죠?

## 2. 음성 생성 (TTS: Text To Speech)

음성 생성은 음성 인식과 반대로 문자(텍스트)를 입력받아 음성(소리)을 출력하는 인공지능이에요. 음성 생성 인공지능은 특정 화자의 음성(소리)과 문자(텍스트)를 입력받아 진행하고, 결과로 만들어진 인공지능 프로그램은 학습한 특정 화자의 목소리, 어조, 억양 등 그 화자의 특징을 그대로 유지한 음성 즉,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인지 아닌지 잘 알아채기 어려운 정도의 자연스러운 음성을 생성하게 돼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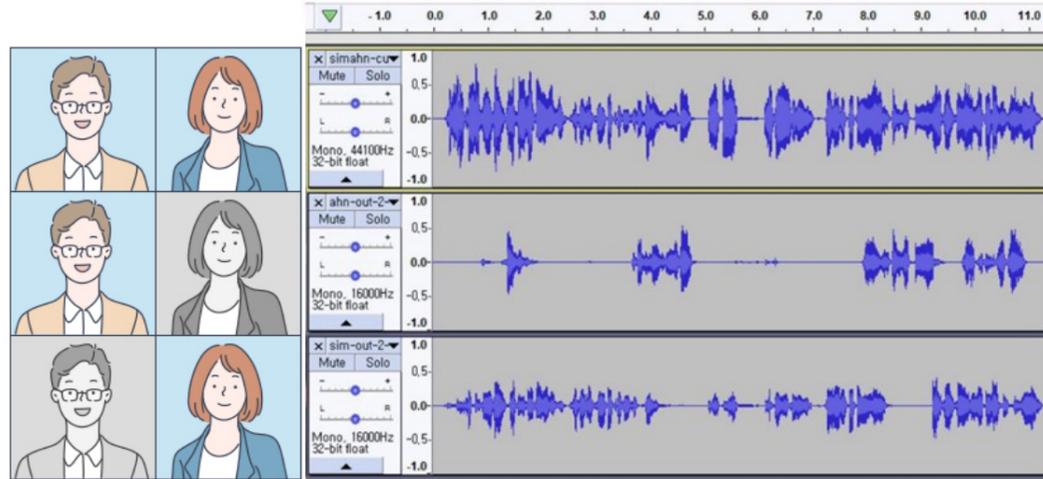
그럼, 말뭉치를 활용하는 음성 인공지능 기술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까요?

## 1. 음성 인식 (STT: Speech To Text)

음성(소리)을 입력받아 결과로 그에 해당하는 문자(텍스트)를 출력하는 것이 음성 인식이에요. 음성 인식 인공지능의 학습에는 다양한 상황의 수많은 사람의 목소리를 학습 데이터로 활용하게 돼요. 음성 인식은 인공지능 분야에서 가장 먼저 연구되어 온 기술로 자동차, 휴대전화, 전화 상담실(콜센터) 등 이미 우리 실생활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지요.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으로 성능이 향상되면서 활용 영역이 수년 전보다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 3. 음성 분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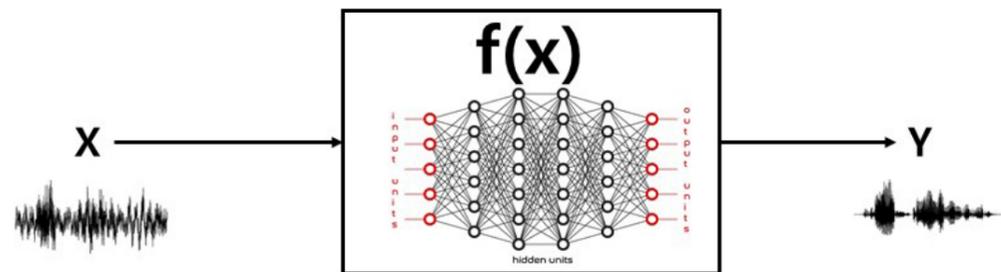
음성 분리는 두 사람 이상의 음성을 분리해 내는 인공지능이에요. 우리가 대화하다 보면 발화 겹침이 생기죠. 이런 경우에 겹치는 부분을 알아듣기 어렵는데, 겹치는 부분을 각 발화자의 음성을 분리해 낸다면 잘 알아들을 수 있겠지요?



<음성 분리 예시>

### 4. 잡음 제거

잡음 제거는 사람의 음성 외의 소리를 지워서 사람의 음성만 추출하는 인공지능이에요. 기차길 옆이나 공장과 같은 시끄러운 환경에서는 소음 때문에 사람의 목소리를 알아듣기 어렵잖아요? 이럴 때, 잡음 제거 인공지능을 활용해 사람의 목소리만 추출한다면 잘 알아들을 수 있어요.



<잡음 제거 인공지능의 입력과 출력 예시>

### 5. 화자 인식 및 화자 인증

화자 인식은 다수의 발화자의 음성 특성을 기반으로 발화자를 구분해서 인식하는 인공지능이에요. 회의 내용을 녹음하고 이것을 회의록으로 만든다고 가정해 보세요. 회의 내용뿐만 아니라 자동으로 화자가 누구인지 구분해서 회의 내용을 정리할 수 있다면 편리하겠지요? 화자 인증은 특정 화자의 목소리인지 알아맞히는 인공지능이에요. 다른 사람 말은 무시하고 주인님 목소리에만 반응하는 서비스를 만들 때 유용하겠지요?

### 6. 음성 변조

음성 변조는 특정인의 목소리를 다른 사람의 목소리 또는 가상의 목소리로 바꾸는 인공지능이에요. 이런 기술은 나쁜 의도를 가지고 사람을 속이는 데 사용하면 안 되겠지요? 공상 과학 영화에서의 섬뜩한 장면이 생각나네요.

### 7. 음성 향상

음성 향상은 저음질의 음성을 고음질의 음성으로 변환하는 인공지능이에요. 옛날 유명인의 연설이나 노래를 고음질로 들을 수 있다면 느낌이 새로울 것 같아요.



인공 지능이 학습하기 위해서는 많은 분량의 데이터가 필요해요. 그래서 말뭉치의 중요성이 지금과 같은 인공 지능 시대에 더 커지고 있지요.

십 년 전보다 우리는 인공 지능을 일상생활에서 더 많이 접하고 있고, 십 년 후에는 우리의 일상에 인공 지능이 없다면 살기 어려울지도 몰라요. 인공 지능이 어렵지만, 이 글을 읽으신 분들은 위에 얘기한 기본적인 개념 정도만 알아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외에도 대화 맥락을 이해하고 자연스러운 대화를 하거나 질문에 답하는 인공 지능 등 매우 다양한 분야에서 음성을 활용한 인공 지능 연구가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어요. 음성뿐만 아니라 의사소통에 사용하는 여러 가지 준언어적, 비언어적 정보와 영상, 이미지 등 멀티미디어 정보를 동시에 인지하는 인공 지능을 만든다면 사람만큼 사람다운 인공 지능도 만들 수 있겠지요?

위와 같은 것들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인공 지능은 인식해야 하는 대상을 벡터로 변환한다고 해요. 간단히 말해서 음성과 같이 인식해야 하는 대상을 여러 개의 숫자로 변환하는 거예요. 이렇게 숫자로 변환하면 계산할 수 있어요. 컴퓨터가 사람보다 나은 것이 뭐라고 했지요? 매우 빠르다는 것과 쉬지 않는다는 거죠!

문장 다듬기

# 헛갈리는 외래어 표기를 알아봐요!



문장 다듬기

저희 회사는 새 **주스** → **주스**  
출시를 앞두고 홍보 방안을  
기획하고 있습니다.

과일이나 야채를 짜낸 즙을 가리키는 외래어  
'juice'의 바른 표기는 '주스'입니다.



문장 다듬기

저희 **아웃렛** → **아웃렛**은 손님들이 방문하고자  
하는 상점을 간편하게 찾으실 수 있도록  
상점 배치도를 **팜플렛** → **팜플릿**으로 만들었습니다.

재고-이월 상품을 한곳에 모아 싸게 판매하는 곳을 가리키는  
외래어 'outlet'은 '아웃렛'으로 적습니다.  
설명-광고를 위해 얇게 만든 책자를 가리키는 외래어 'pamphlet'은  
'팜플릿'으로 적으며, '소책자, 작은 책자'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문장 다듬기

이번 하계 **컨퍼런스** → **콘퍼런스**의 주제는  
'새 일상 시대의 누리소통망  
**컨텐츠** → **콘텐츠**'입니다.

전문적인 주제로 긴 시간에 걸쳐 열리는 대규모 회의를 가리키는  
외래어 'conference'는 '콘퍼런스'로 적으며, '학술회의, 학술 대회'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등을 통해 제공되는 각종 정보를 가리키는 외래어 'contents'는 '콘텐츠'로 적습니다.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국립국어원 누리집에서  
"공공언어 바로 쓰기"를 찾아보세요!



국립국어원 누리집  
심표, 마침표.

문학작품속  
**살아 숨 쉬는 지역어**  
- 이문구 소설 둘러보기 -

국립국어원

**살아 숨 쉬는 지역어** 국립국어원

"대부께서 보시기에 앞으로는 어떨 것 같습니까요?"  
"초육과 **하냥** 늑자 현 사람더러 새콤바지게 뭘 묻구 있는겨? 지집이 갈린 건 몰러두 것가락 바뀐 건 알려라구, 수십 리 바깥 것이 산인지 구름인지 위제 안다나? 백수모년에 배차씨 장사를 해두 입을 지킬 줄 알으니께 구만두세야." 하고 석담은 웃었다.

<관촌수필> 중

**지역어** **매루** → **대응 표준어** **처럼, 같이**

**살펴보기**

'매루'는 '모양이 비슷하거나 같을'을 나타내는 충청 방언입니다. 뜻이 같은 표준어로는 '처럼, 같이' 등이 있습니다.

**살아 숨 쉬는 지역어** 국립국어원

"대부께서 보시기에 앞으로는 어떨 것 같습니까요?"  
"초육과 **하냥** 늑자 현 사람더러 새콤바지게 뭘 묻구 있는겨? 지집이 갈린 건 몰러두 것가락 바뀐 건 알려라구, 수십 리 바깥 것이 산인지 구름인지 위제 안다나? 백수모년에 배차씨 장사를 해두 입을 지킬 줄 알으니께 구만두세야." 하고 석담은 웃었다.

<산 너머 남촌> 중

**지역어** **하냥** → **대응 표준어** **함께**

**새콤바지다** → **새삼스럽다**

**살펴보기**

'하냥'은 '함께'를, '새콤바지다'는 '새삼스럽다'를 뜻하는 충청 방언입니다. '새콤바지다'의 다른 방언형으로는 '새콤땀다'가 있습니다.

**살아 숨 쉬는 지역어** 국립국어원

"에잇— 우리 여편네허구 씨비힐 새두 굶는디 남허구 시비를 허여?"  
기탈뿐인지 알았던 고가 뼈 든 소리로 맞설 김새를 보이자, 이윽고 **말반죽**이 짙음한 조가 한 다리를 걸고 들어왔다.

<으악새 우는 사연> 중

**지역어** **말반죽** → **대응 표준어** **말본새**

**질음하다** → **걸다**

**살펴보기**

'말반죽'은 '말하는 데도나 모양새'를 뜻하는 충청 방언으로, 뜻이 같은 표준어로는 '말본새'가 있습니다. '말반죽'은 '말반죽이 짙음하다'처럼 뜻이 부정적인 말과 어울려 쓰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질음하다'는 '말이 거리낌 없이 매우 푸짐'을 뜻하는 충청 방언으로, 뜻이 같은 표준어로는 '걸다'가 있습니다.

**살아 숨 쉬는 지역어** 국립국어원

**작가 정보**

**이문구** (1941~2003) 소설가는 충청남도 보령 출신입니다.

1965년 《현대문학》에 <다갈라 불랑비>가 추천되어 등단했습니다.

2003년 은관문화훈장에 추서되었으며, 대표작으로 <관촌수필>, <산 너머 남촌> 등이 있습니다.

문학 속 지역어가 더 궁금하다면  
국립국어원 '지역어 종합 정보'를 살펴보세요.

# ‘로컬 소싱’은 ‘현지 조달’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와 국립국어원(원장 장소원, 이하 국어원)은 ‘로컬 소싱’을 대체할 쉬운 우리말로 ‘현지 조달’을 선정했다.

‘로컬 소싱’은 상품을 제작하거나 생산할 때 국내에서 만들어진 물자를 활용하는 전략을 이르는 말이다.

문체부는 ‘쉬운 우리말 쓰기 사업’의 하나로 국어원과 함께 외국어 새말 대체어 제공 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문체부와 국어원은 지난 7월 20일(수)에 열린 새말모임\*을 통해 제안된 의견을 바탕으로 의미의 적절성과 활용성 등을 다각으로 검토해 ‘로컬 소싱’의 대체어로 ‘현지 조달’을 선정했다.

\* 새말모임: 어려운 외래 용어가 널리 퍼지기 전에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다듬은 말을 제공하기 위해 국어 유관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

이에 대해 문체부는 7월 22일(금)부터 28일(목)까지 국민 2천여 명을 대상으로 ‘어려운 외국어에 대한 우리말 대체어 국민 수용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5.0%가 ‘로컬 소싱’을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것이 좋다고 응답했다. 또한 ‘로컬 소싱’을 ‘현지 조달’로 바꾸는 데 응답자의 90.6%가 적절하다고 응답했다.

문체부와 국어원은 ‘로컬 소싱’처럼 어려운 용어 때문에 국민이 정보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현지 조달’과 같이 쉬운 말로 발 빠르게 다듬고 있다. 선정된 말 외에도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다른 우리말 대체어가 있다면 사용할 수 있다. 앞으로도 문체부와 국어원은 정부 부처와 언론사가 주도적으로 쉬운 말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 홍보할 계획이다.

<새말모임(7.20.) 다듬은 말>

대상어(원어)	다듬은말	의미
로컬 소싱 (local sourcing)	현지 조달	상품을 제작하거나 생산할 때 국내에서 만들어진 물자를 활용하는 전략.
베이비 스텝 (baby step)	소폭 조정	한 나라의 금융과 통화 정책의 주체가 되는 중앙은행이 기준 금리를 0.25% 인상 또는 인하하는 것.
빅 스텝 (big step)	대폭 조정	한 나라의 금융과 통화 정책의 주체가 되는 중앙은행이 기준 금리를 0.5% 인상 또는 인하하는 것.
자이언트 스텝 (giant step)	광폭 조정	한 나라의 금융과 통화 정책의 주체가 되는 중앙은행이 기준 금리를 0.75% 인상 또는 인하하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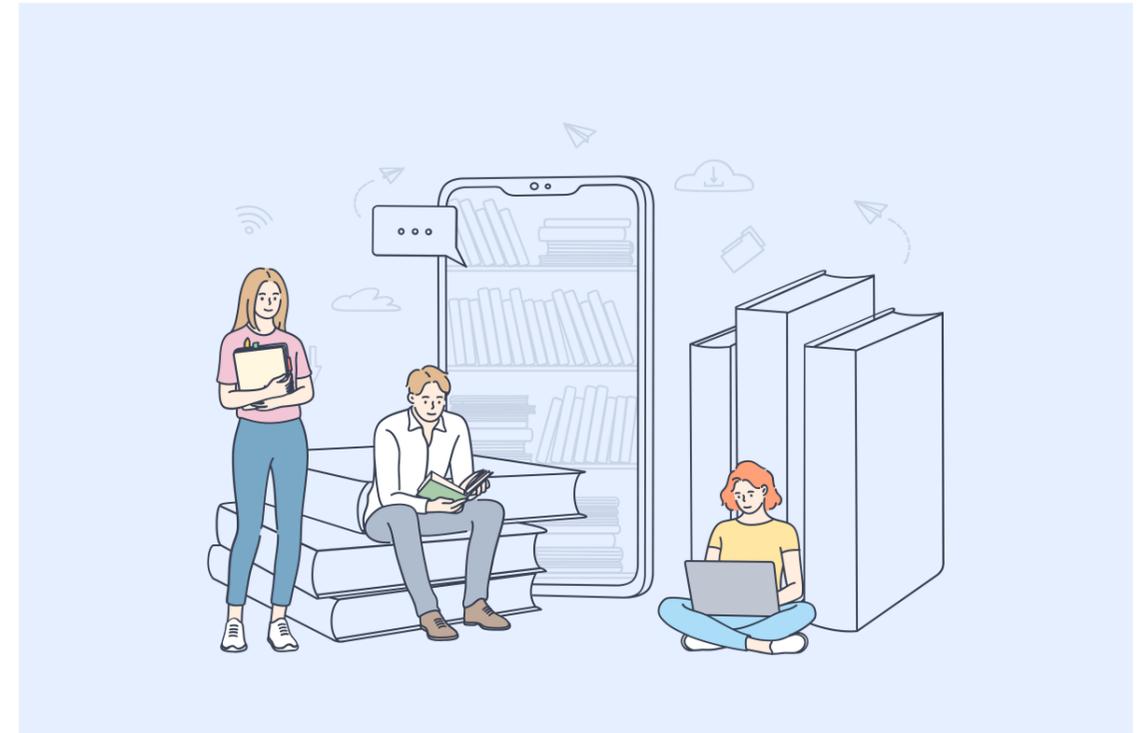


# 한국어 책에서 보는 한국의 삶

이미향 (영남대 글로벌교육학부 교수)



세상의 모든 것은 시간에 따라 변한다. 한국어 교실에서 가르치는 말도 세상과 삶의 변화에 따른다. 외국어를 배우는 목적이 의사소통에 있는 것인 만큼, 외국어 책에는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말들이 우선적으로 선정된다. 그러다 보면 ‘책’이 그 말을 쓰는 이들의 세상살이를 그대로 비추게 된다. 한 예로, 오래전 한국어 책에 나오던 ‘다방’이 ‘커피숍’으로 바뀌더니, 요즘에는 다시 ‘카페’로 바뀌어 있다. 젊은이들이 다방이라고 말하지 않게 된 어느 순간과 마찬가지로, 지금 한국의 젊은이들은 커피숍이라고 하지 않는다는 것을 방증한다. ‘빨리빨리 문화’로 대변되는 한국 사회는 변화가 크고 역동적인 사회라고 자타가 공인한다. 그러한 변화가 한국어 책에는 어떻게 그려져 있을까?



사강: 이 구내 서점에서 공책도 살 수 있습니까?  
 점원: 없습니다. 공책은 저 문방구점에서 팔고 있습니다.  
 사강: 서점에서는 책만 파는군요.  
 점원: 그렇습니다. 무슨 책이든지 다 사실 수 있습니다.  
 사강: 그러면 프랑스 책도 살 수 있습니까?  
 점원: 그럼요. 주문하시면 사실 수 있습니다.  
 사강: 오늘 주문하면 언제쯤 책이 옵니까?  
 점원: 오늘 주문하시면 두 달 후에는 책이 옵니다.

『한국어 1』, 서울대학교 어학연구소(1979년)



1979년에 발행된 한국어 책에서 구내 서점의 점원과 손님이 주고받는 말을 보자. 지금으로부터 43년 전, 서점에서는 문구류를 팔지 않고, 외국책은 주문해야만 살 수 있으며, 프랑스 책은 두 달이 걸려야 도착한다고 한다. 다른 단원을 조금 더 살펴보면, 열람증을 만들기 위해 신청서 용지를 쓰고 사진 한 장을 가져오라는 도서관 풍경도 있다. 집에 초대할 친구에게 “약도를 그려 줄게요.”라는 대학생도 보이고, “정 선생님 좀 바꿔주세요.”라고 공손하게 말하는 전화기 너머 누군가도 있다.

바나나 값이 꺾의 세 배 이상이라고 탄식하는 외국인에게 “꺾은 제주도에서 나지만, 바나나는 외국에서 수입합니다.”라고 설명하는 가게 주인도 나온다. 빵집에서 한 대학생이 사 들고 나오는 ‘사라다빵’, 제일 좋은 담배라는 ‘거북선’이 한 갑에 300원이라는 말도 있다. 또한, 기성복이 보편화되지 않은 때에 손님이 ‘가을에 입을 투피스 한 벌 맞추려고 한다’고 하자 양장점 주인은 옷감을 가지고 왔느냐고 묻는다. “오늘 치수를 재시고, 사흘 뒤에 오셔서 가봉하세요. 그러면 그 다음 다음날 찾으실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말에서, 투피스 하나를 손에 들려면 일주일의 보내야 할 것을 짐작해 본다.

어디 1970년대의 생활상만이 녹아 있을까? 130년도 더 된, 외국인 선교사가 쓴 한국어 책을 하나 더 보자. 외국인 선교사는 한국어를 가르치기 이전에 한국어를 외국어로 배운 경험이 있는 학습자였다. 그들은 한국어 책에 한국 사회와 문화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이방인으로서 한국에 사는 마음을 털어놓았다.

조선말을 배워 보건대 대단히 어려울 듯하오.  
 조선말을 잘하는 외국 사람이 적소.  
 정부에서 시골에 외국 사람 사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오.  
 미국은 없는 것 없소.  
 영어를 알면 천하에 다녀도 말을 통할 것이니...  
 미국에 가고 싶소.

『한영문법』, H. G. Underwood(1890년)  
 \* 예문은 필자가 현대어로 바꾼 것임.

‘그 나라’에 대한 특정 지식은 언어를 통해 배운다. 그러므로 언어 교육의 모든 과정에는 당대의 문화가 반영되기 마련이다. 그런데 교재란 원래 보수적이라 사회의 변화를 바로 반영하지 못한다. 현실성을 기준으로 지금 한국어 책을 들여다보면 가끔은 가르쳐야 하는 말인지 망설일 일이 생긴다. “이거 모두 얼마예요?”, “깎아주세요.” 등이 그러하다. 작은 편의점에서도 눈으로 가격을 확인할 수 있고, 한국의 결제 시스템에서 대부분 흥정할 곳이 없어진 탓이다. 전자 잠금장치가 대부분인 한국에서 “열쇠를 잃어버려서 집에 못 들어갔어요.”라는 말도 해 본 지 오래된 것 같다. 길을 검색하는 세상에서 약도를 읽을 일도, “몇 번 버스를 타야 해요?”라고 말할 일도 없다. 배달 앱을 쓰면서부터 전화로 주문하는 말도 직접 해 볼 일이 없고, 기차표도 말로 사지 않는다. 기술의 혁신으로 의사소통의 방식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하여 “어떻게 가야 해요?”, “몇 번 버스를 타야 해요?”와 같은 말을 안 가르칠 수도 없는 일이다. 그러한 말을 쓰지 않는다면 그 대답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도, 말을 걸 때 쓰는 ‘저기요, 실례합니다’도 배울 필요가 없는 셈이다. 말이란 사람과 사람이 통하는 길인데, 정보를 주고받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친구의 말들이 있다. 사람과 관계를 만들어 가는 말은 사람과 부대끼면서 익히는 수밖에 없다.

다시 43년 전 책을 펼쳐 본다. 격려와 칭찬을 들은 한 20대 대학생이 겸손을 표현하는데, “원 별말씀을 다 하십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와 같이 말한다. 지금 한국어 책에 나온 말과 비교해 보면 같은 20대라고 상상이 되지 않는다. 사회가 바뀐다는 것은 물질문화만이 아니라 소통 방식의 변화도 함의한다. 새로운 문물과 기술이 사회를 바꾸더라도 그때 곁에 있는 사람과 통할 소통법은 배워야만 한다. 그러면 한국어 책에는 어떤 내용이 어디까지 담겨 있어야 할까? 130년 전 외국인 교육자처럼, 나도 한국어 교실을 들어서며 드는 고민을 털어놓는다.

# 감사하다와 고맙다, 같은 듯 다른 쓰임새



‘감사하다’와 ‘고맙다’라는 말은 남의 도움이나 배려에 기쁨을 느끼거나 보답하고 싶은 마음이 있음을 나타내는 말이다. 둘의 뜻이 아주 비슷하여 별다른 구별 없이 사용한다. 그런데 종종 ‘감사하다’와 ‘고맙다’를 두고 엉뚱한 논의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열정적인 우리말 지킴이 가운데 간혹 한자어를 배척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이들이 있다. 그들은 한자어 때문에 고유어가 위축되었다고 여기기에 ‘감사하다’를 지양하고 ‘고맙다’를 열심히 사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한자의 유입은 우리말을 위축시키기보다 오히려 풍부하게 했다고 보는 것이 훨씬 균형 잡힌 시각이라고 생각한다. 후술하겠지만 ‘고맙다’와 ‘감사하다’의 쓰임이 완전히 같지는 않기 때문이다.

그런가 하면 ‘감사’는 일본어에서 왔다는 잘못된 통설이 ‘감사하다’를 쓰지 말아야 한다는 주장의 근거로 쓰이기도 한다. 물론 일본어 ‘感謝’는 우리말 감사와 뜻도 같고 같은 한자를 쓴다. 하지만 이는 중국과 우리나라에서 오래전부터 사용해 온 한자어이다. ‘조선왕조실록’만 보더라도 ‘태조실록’에서 ‘순종실록’에 이르기까지 ‘感謝’가 빈도 높게 나타날 뿐 아니라 ‘송서’와 같은 중국 고문헌에도 나타나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감사’의 일본어 기원설은 전혀 타당하지 않다.



‘감사하다’와 ‘고맙다’는 뜻은 비슷하지만 쓰임이 다르다. ‘감사하다’는 동사와 형용사로 쓰이지만 ‘고맙다’는 형용사로만 쓰인다.

- ㉠ 요즘 아이들은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할/고마울 줄을 모른다.
- ㉡ 내 덕에 일이 잘되었으니 나한테 감사해라/고마워라.
- ㉢ 그동안 베풀어 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깊이 감사하고/고맙고 있습니다.
- ㉣ 제 강연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고맙습니다.

㉠, ㉡, ㉢는 ‘감사하다’가 동사로 쓰인 것으로 ‘고맙다’로 대체될 수 없는 경우이고, ㉣는 형용사로 쓰인 것으로 ‘감사하다’와 ‘고맙다’가 모두 가능한 경우이다. ‘고맙다’가 동사로 바뀔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 아니다. ‘-어하다’가 붙어 ‘고마워하다’로 바뀌면 가능하다. ㉠와 ㉡의 경우 ‘부모님의 은혜에 고마워할 줄 모른다’, ‘나한테 고마워해라’와 같이 쓸 수 있다. 하지만 ㉢의 경우는 ‘고마워하다’로 대신하면 부자연스럽다. 문장의 주어가 일인칭인 경우 ‘형용사 어근+-어하다’는 성립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런데 ㉣에서 보듯 ‘감사하다’가 형용사로 쓰일 때에는 ‘고맙다’로 대체할 수 있다. 하지만 언제나 그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형용사 ‘감사하다’에는 ‘고맙다’와 달리 제약이 따른다.

- ㉤ 도와줘서 고마워/감사해.
- ㉥ 네 뜻은 고맙지만/감사하지만 사양할게.
- ㉦ 그는 우리에게 참 고마운/감사한 분이다.

㉤, ㉥와 같이 ‘감사하다’는 해라체나 해체 등을 쓸 수 있는 손아랫사람이나 동년배를 대상으로는 사용하기 어렵다.(근래에 ‘감사하다’를 ㉤, ㉥에서와 같이 사용하는 경향이 조금씩 늘고 있기는 하다.) 반면, 대상이 손윗사람이면 ‘감사하다’를 사용하여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뜻은 감사하지만 사양하겠습니다.”와 같이 말할 수 있다. 그런가 하면 ㉦의 경우처럼 ‘어간+-ㄴ(관형사형 어미)+대상’의 형식을 띠 때 ‘고맙다’는 자연스럽지만 ‘감사하다’는 자연스럽지 못하다. 예컨대 ‘고마운 분/고마운 이웃/고마운 친구/고마운 선생님’은 자연스럽지만 ‘감사한 분/감사한 이웃/감사한 친구/감사한 선생님’은 부자연스럽다. 이런 현상은 ‘고맙다’의 기원과 관계있는 것 같다. 본래 ‘고맙다’는 옛말 ‘고마하다’에 형용사를 만드는 접사 ‘-ㅁ-’이 결합하여 생긴 말이다. ‘고마하다’는 ‘존경하다, 삼가 높이 여기다’를 뜻하므로 ‘고맙다’는 ‘존경스럽다’, ‘삼가 높이 여길 만하다’의 뜻을 기원적으로 가지고 있다. 따라서 ‘고마운 분’은 ‘존경스러운 분, 삼가 높이 여길 만한 분’이라는 의미가 바탕에 깔려 있다고 할 수 있다.

- ㉧ 수술 후 마취에서 깨어나자 살아 있다는 사실이 감사해/고마워 눈물이 났다.
- ㉨ 하느님께 감사하라/고마워하라.

한편, 대상이 삶 또는 주어진 현실 같은 추상적 개념이거나 신과 같은 초월적 존재일 때에는 주로 ‘감사하다’가 쓰인다.

‘감사하다’와 ‘고맙다’는 고유어나 아니냐에 상관없이 둘 다 활발하게 쓰이는 소중한 우리말이다. ‘목숨’과 ‘생명’ 중 어느 하나만 써야 할 이유가 없듯이, ‘감사하다’를 배제하고 ‘고맙다’만 써야 할 이유가 없다.

글: 강은혜

※ 참고 자료

안상순, 『우리말 어감 사전』, 도서출판 유유, 2021.

문장 다듬기

# 헛갈리는 띄어쓰기를 알아봐요!

국립국어원

시급한 정책은 추진하는데 → 추진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최대한 단축해야 합니다.

위 예문에서 '데'는 어미 '-는데'의 일부가 아니라 의존 명사 '대'이므로,  
'추진하는 데'와 같이 띄어 써야 합니다.

국립국어원

주민자치회에서는 주차 문제를 해결하고자  
도시공학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한바 → 수렴한 바 있습니다.

위 예문에서 '바'는 어미 '-나바'의 일부가 아니라,  
앞에서 말한 내용 그 자체나 일 등을 나타내는 의존 명사입니다.  
의존 명사는 앞말과 띄어 쓰므로 '수렴한 바'와 같이 띄어 써야 합니다.

국립국어원

휴가를 떠나기 전에는 창문이나 출입문 등을 잘  
잠갔는 지 → 잠갔는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위 예문에서는 '잠갔는지'를 '잠갔는 지'로 잘못 썼습니다.  
여기에서 '지'는 의존 명사가 아니라 어미 '-는지'의 일부입니다.  
그러므로 '잠갔는지'와 같이 붙여 써야 합니다.

국립국어원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국립국어원 누리집에서  
"공공언어 바로 쓰기"를 찾아보세요!

국립국어원 누리집  
심표, 마침표.

# 문학 작품 속 살아 숨 쉬는 지역어

## - 김원일 소설 둘러보기 -

국립국어원

살아 숨 쉬는 지역어

고물 장수, 채소 장수, 오명 장수, 약밥 장수, 지가 안 해본 장사가 읍시다. 물론 **안들**도 뺏골 빠지게 일했지예.

<불의 제전> 중

지역어	→	대응 표준어
안들		아내, 여자아이

살펴보기

'안들'은 '아내', '여자아이'를 뜻하는 경상 방언입니다. 경상남도에서는 '아내', 경상북도에서는 '여자아이'를 주로 가리킵니다.

살아 숨 쉬는 지역어

인자 더 풀어 줄 연줄이 없으니까 **꼭다시** 내 연줄의 한 부분을 다른 아이의 연줄이 외골로 파고들 참이었능기라.

<연> 중

지역어	→	대응 표준어
꼭다시		고스란히

살펴보기

'꼭다시'는 '그대로 온전한 상태'를 뜻하는 경상 방언입니다. 뜻이 같은 표준어로는 '고스란히'가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꼭다시'로 쓰이기도 합니다.

살아 숨 쉬는 지역어

대현리는 부락민 절반이 처가 쪽이거나 겹사돈 인척으로 **얼래**가 짜여, 이미 저 세상 사람이 되고 만 신정대나 방 서방 처 사단만 아니었다면 누구누구를 고발하거나 신고할 입장이 못 되었다.

<겨울 골짜기> 중

지역어	→	대응 표준어
얼래		집안, 문중

살펴보기

'얼래'는 성과 본이 가깝거나 가족을 구성원으로 해 살림을 꾸려 나가는 공동체를 뜻하는 경상 방언입니다. 뜻이 같은 표준어로는 '집안', '문중'이 있습니다. 지역에 따라 '올래'로 쓰이기도 합니다.

살아 숨 쉬는 지역어

작가 정보

**김원일** (1942-) 소설가는 경상남도 김해 출신입니다.

1966년 대구매일신문 신춘문예에 소설 <1961월제리아>가 당선되었습니다.

전쟁과 분단에 관한 이야기를 주로 다루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어둠의 온>, <연>, <겨울 골짜기> 등이 있습니다.

살아 숨 쉬는 지역어

문학 속 지역어가 더 궁금하다면 국립국어원 '지역어 종합 정보'를 살펴보세요.

# ‘네버 코비드’는 ‘코로나 비감염’으로

국립국어원 새말모임 다듬은 말 마련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보균, 이하 문체부)와 국립국어원(원장 장소원, 이하 국어원)은 ‘네버 코비드’를 대체할 쉬운 우리말로 ‘코로나 비감염’을 선정했다.

‘네버 코비드’는 코로나19에 한 번도 걸리지 않은 상태 또는 한 번도 걸리지 않은 사람을 이르는 말이다.

문체부는 ‘쉬운 우리말 쓰기 사업’의 하나로 국어원과 함께 외국어 새말 대체어 제공 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문체부와 국어원은 지난 8월 3일(수)에 열린 새말모임\*을 통해 제안된 의견을 바탕으로 의미의 적절성과 활용성 등을 다각으로 검토해 ‘네버 코비드’의 대체어로 ‘코로나 비감염’을 선정했다.

\* 새말모임: 어려운 외래 용어가 널리 퍼지기 전에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다듬은 말을 제공하기 위해 국어 유관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

이에 대해 문체부는 8월 5일(금)부터 11일(목)까지 국민 2천여 명을 대상으로 ‘어려운 외국어에 대한 우리말 대체어 국민 수용도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67.8%가 ‘네버 코비드’를 쉬운 우리말로 바꾸는 것이 좋다고 응답했다. 또한 ‘네버 코비드’를 ‘코로나 비감염’으로 바꾸는 데 응답자의 77.2%가 적절하다고 응답했다.

문체부와 국어원은 ‘네버 코비드’처럼 어려운 용어 때문에 국민이 정보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코로나 비감염’과 같이 쉬운 말로 발 빠르게 다듬고 있다. 선정된 말 외에도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다른 우리말 대체어가 있다면 사용할 수 있다. 앞으로도 문체부와 국어원은 정부 부처와 언론사가 주도적으로 쉬운 말을 사용할 수 있도록 계속 홍보할 계획이다.

<새말모임(8.3.) 다듬은 말>

대상어(원어)	다듬은 말	의미
네버 코비드 (never COVID)	코로나 비감염	코로나19에 한 번도 걸리지 않음. 또는 그런 사람.
트래블 룰 (travel rule)	송금 정보 기록제	온라인에서 가상 자산이나 자금을 주고받을 때 자금 세탁 등을 방지하기 위해 주고받는 사람의 정보를 기록하도록 하는 원칙.



※ (참고) 코로나19 관련 쉬운 우리말 대체어

어려운 외국어	쉬운 우리말 대체어	어려운 외국어	쉬운 우리말 대체어
팬데믹	(감염병) 세계적 유행	비말	침방울
에피데믹	(감염병) 유행	진단 키트	진단 도구(모음), 진단 (도구) 꾸러미
글로벌 윌	의료용 분리벽	의사 환자	의심 환자
언택트 서비스	비대면 서비스	트래블 버블	비격리 여행 권역, 여행 안전 권역
엔데믹	(감염병) 주기적 유행	코로나 블루	코로나 우울
트윈데믹	감염병 동시 유행	코로나 레드	코로나 분노
풀링 검사	취합 (선별) 검사	코로나 블랙	코로나 절망
윈드 스루 검진	투명창 검진	코로나 쇼크, 코로나19 쇼크	코로나 충격
페이스 실드	얼굴 가림막	부스터샷, 부스터샷	추가 접종
스니즈 가드	침방울 가림막	롱 코비드	코로나 감염 후유증
지표 환자	첫 확진자	제로 코로나	고강도 방역
엔(n)차 감염	연쇄 감염, 연속 감염	엔데믹 블루	일상 회복 불안
드라이브스루 진료	승차 진료, 승차 검진, 차량 이동형 진료(또는 검진)	네버 코비드	코로나 비감염



# 우리말 속 차별 언어

## 특정 계층과 관련된 표현

국립국어원

국립국어원

습관적으로, 무심히 쓰는 말들이 고정 관념을 남기기도 합니다.

오늘은 계층과 관련된 표현을 알아볼까요?

국립국어원

✓ 저희 조합에서는 **결혼 가족**의 학생들에게 교복 구매비를 지원합니다.

○ 저희 조합에서는 **한 부모 가족**의 학생들에게 교복 구매비를 지원합니다.

부모의 한쪽이 없어 미성년인 자녀를 돌보기 어려운 가정을 두고 '결혼 가족'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혼'이라는 말에는 '잘못되어 불안정하다'는 뜻이 있으므로, '한 부모 가족'으로 대신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립국어원

✓ 이 행사의 수익금은 **볼우이웃**을 돕는 데에 쓰일 것입니다.

○ 이 행사의 수익금은 **어려운 이웃**을 돕는 데에 쓰일 것입니다.

살림이나 처지가 어려운 이웃을 가리켜 '볼우 이웃'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볼우'에는 '아차롭고 가엾다'는 뜻이 있어 불필요한 고정 관념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이웃'으로 대신할 수 있습니다.

국립국어원

✓ 지난 동포 축제에는 **재미 동포, 재일 동포, 조선족** 등 다양한 나라의 동포가 모였습니다.

○ 지난 동포 축제에는 **재미 동포, 재일 동포, 재중 동포** 등 다양한 나라의 동포가 모였습니다.

중국에 사는 우리 겨레를 가리켜 '조선족'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른 나라의 동포와 달리 중국 동포만을 '조선족'이라고 부르는 것은 차별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같은 민족의 사람을 다양하게 이르는 말인 '동포'를 넣어 '재중 동포'로 쓰는 것이 좋습니다.

국립국어원

차별과 편견이 들어간 표현보다는 적절한 표현을 찾아 써 보세요.

국립국어원

# 알기 쉬운 공공언어 문화를 꽃피우기 위하여

## 한글문화연대 이견범 대표



‘거버넌스, 아카이브, 퍼실리테이터’ 같은 외국어를 처음 들었을 때 무슨 말인지 아리송했던 기억이 누구에게나 있을 것이다. 특히 공공언어 분야에서 무분별하게 쓰이는 외국어를 보노라면 걱정되지 않을 수 없다. 어려운 용어는 그 자체로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쉽표, 마침표.》에서는 ‘쉬운 우리말 쓰기 운동’을 펼치고 있는 한글문화연대의 이견범 대표를 만나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 봤다.

《쉽표, 마침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국립국어원 소식지 독자 여러분께 간단히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이견범** 사단법인 한글문화연대 대표 이견범입니다. 2000년부터 한글문화연대 운영위원으로 일했으니 20년 넘게 연을 맺었네요. 젊은 시절 민주화 운동으로 감옥살이할 때 법률 용어와 같은 어려운 말이 인권을 침해할 위험이 크다는 걸 알게 되면서 국어 운동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죠. 한글날을 공휴일로 되돌리는 데에 앞장섰고, 공문서에 한자를 혼용하자는 사람들이 청구한 위헌 심판에서 한글 전용을 변론하여 지켜 냈습니다. 『언어는 인권이다』 외 다수의 책을 써냈고, 강연 활동도 하고 있어요. 아, 그리고 저는 후천적 시각 장애인입니다. 지금 눈앞의 기자님도 어렵풋하게 보이네요. (웃음)



《쉽표, 마침표》 한글문화연대의 활동에 힘입어 ‘스크린도어’는 ‘안전문’으로, ‘자동제세동기’는 ‘자동심장충격기’로 바뀌는 등 우리 일상 언어가 달라지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아직 한글문화연대를 모르는 분들을 위해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이건범** 한글문화연대는 2000년에 설립되어 우리 말글을 지키고 아름답게 가꾸어 퍼뜨리는 일을 하고 있어요. 학술, 방송, 언론, 출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말글을 가꾸어 우리 문화의 정체성을 찾는 일을 목표로 하고 있죠. 특히 공공언어를 누구나 알기 쉬운 우리말로 바꿔 쓰자는 ‘쉬운 우리말 쓰기 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공공언어를 만들어 내는 공공기관이 국어기본법을 지키게끔 감시하고 있죠.

《**쉽표, 마칩표**》 공공 기관이 지켜야 하는 국어기본법, 어떤 내용인가요?

**이건범** 법에서는 “공공기관 등은 공문서를 일반 국민이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써야 하며, 어문규정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동안은 이 규정을 위반해도 특별한 처벌이나 사후 조치가 따르지 않았어요. 하지만 작년에 국어기본법이 개정되면서 올해부터 문화체육관광부는 공문서 등을 평가하고 결과를 공개해야 합니다. 평가 기준은 시행령으로 정할 텐데, 규정한 대로 일반 국민이 알기 쉬운 용어로 썼는지, 어문규범에 맞추어 썼는지, 한글로 작성하였는지 등 네 가지가 큰 갈래라고 할 수 있죠. 어쨌거나 평가 기준이 마련되면 정부와 공공 기관은 이 기준에 맞춰서 공문서를 작성해야 돼요. 의무사항인 거예요.



《**쉽표, 마칩표**》 정부가 쓰는 공공언어를 감시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 같습니다.

**이건범** 우리 연대가 이러한 활동을 시작한 건 공공언어의 한글 전용 위반 사례, 외국어 남용 사례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연대는 2019년부터 중앙 정부 부처에서 발간하는 모든 보도 자료를 일일이 조사하고 있습니다. 영어를 한글로만 표기한 외국어 남용 사례는 중앙부처의 보도 자료를 통틀어 4만 건 이상이 발견되는 실정이에요. 특히 아르앤디(R&D), 아이시티(ICT), 에이아이(AI) 등등 외국어 줄임말이나 한자를 본문에 그냥 써서 실정법인 국어기본법을 어긴 사례는 약 1만 5000건 이상 나타났습니다. 우리 연대는 한 달 평균 500건이 넘는 보도 자료에 대해 항의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해당 보도 자료를 작성한 공무원에게 앞으로 잘 지킬 것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죠. 처음에는 강한 경고를 했는데, 가령 우리의 지적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법을 어긴다면 한글문화연대 누리집에 실정법을 어긴 공무원이라고 실명을 공개할 것이며, 감사원에도 감사를 청구하겠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공문 내용을 기존의 경고 분위기에서 권고하는 정도로 바꾸었어요. 어쨌든 공문을 보내게 되면 공무원들이 전화를 걸어오기도 합니다. “국어기본법이라는 법을 몰랐다.”, “상부나 다른 부처에서 만든 용어라서 마음대로 고칠 수가 없다.”, “대안어가 적절하지 않다.”라고 하는 하소연을 듣습니다. 지적 사항에 고마움을 표시하는 전화도 제법 있고요.

《**쉽표, 마칩표**》 공문의 효과가 궁금합니다. 실제로 공공 기관의 잘못된 용어 사용이 개선되고 있나요?

**이건범** 보도 자료를 작성하는 담당 공무원이 계속 바뀌는 등 여러 장애물이 있어서 국어기본법을 위반한 보도 자료의 비율은 크게 줄어들지 않는데요, 사용하던 용어에서는 점차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연대의 항의 공문을 받은 산업자원부에서는 ‘헬스케어’라고 외국어로만 쓰던 낱말을 ‘건강관리’로, 복지부에서는 ‘플랫폼’을 ‘기반’으로, 환경부에서는 ‘트레킹’을 ‘걷기’로, 근로복지공단에서는 ‘트라우마’를 ‘심리불안’으로 과기부에서는 숫자와 영문으로 ‘5G’라고 한 표기를 ‘5세대’로 바꾸었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스타트업’을 ‘새싹기업’으로 바꿔서 보도 자료를 내기도 했어요. 공문을 끈질기게 보내면 생각보다 요청이 잘 받아들여져요. 이처럼 변화되고 개선되는 모습을 볼 때가 가장 보람을 느끼는 순간이죠.

《**쉽표, 마칩표**》 언론 매체의 보도 용어 역시 외래어가 남용되어 일반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건범** 맞습니다. 언론 보도 용어에서 주로 문제가 되는 용어와 신조어가 있죠. 에이아이, 싱크홀, 보이스 피싱 등등... 얼마든지 우리말로 대체할 수 있는데, 무분별하게 남용되어 널리 퍼진 외래어가 많아요. 우리 연대는 자료를 수집해서 기자들에게 전자 우편으로 건의문을 보내고 있어요. 거부감을 보인 이들도 있지만 우리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공감을 밝힌 이도 많았죠. 이 같은 보도 용어 개선 운동의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포스터와 카드 뉴스를 배포했습니다. 저와 사무국장이 여러 방송사를 직접 방문해서 보도국 책임자들에게 포스터를 붙여 줄 것을

**이건범** 요구했어요. 또한 서울시에서 이 포스터를 지하철 실내에 게시하기에 적합하게 손질하여 서울 시내 모든 지하철에 붙이기도 했어요. 포스터에 공통으로 들어간 문구가 있어요. ‘알기 쉬운 말이 알 권리를 지켜 줍니다.’



**《쉽표, 마침표》** 우리가 어려운 공공언어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군요.

**이건범** 공공언어는 공적 언어를 다루는 언어이므로 일반 국민이 알아듣기 쉬워야 해요. 공공언어가 어려우면 정책 집행의 효율도 떨어집니다. 특히 외국어 단어를 남용하면 외국어 능력이 떨어지는 국민을 소외시키는 꼴이 돼요. 이는 민주주의의 약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즉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건강한 공론장 문화를 꽃피우기 위해서는 알기 쉬운 공공언어를 사용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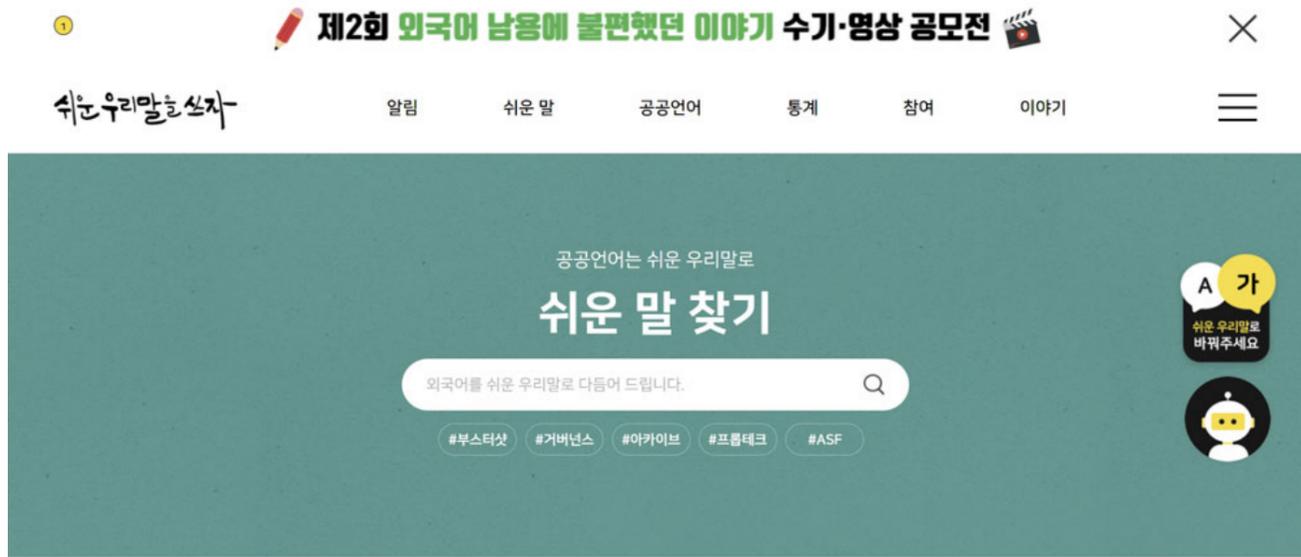
**《쉽표, 마침표》** 그렇다면 어려운 공공언어는 왜 생기는 건가요?

**이건범** 우선 공공언어에서 사용하는 외국어는 공개적인 토의와 검증을 거쳐 사용하는 말이 아니에요. 기업이나 학계에서 사용한 용어를 그 분야의 공무원이 정책 용어로 쓰면서 순식간에 공식 용어의 지위를 얻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번 쓰여서 언론에 나가기 시작하면 다른 공무원과 기자도 곧 그 말을 사용하게 돼요. 예를 들어 ‘이동 수단’ 대신 ‘모빌리티’라는 말을 사용한 업계의 사례를 보고 어느 공무원이 ‘모빌리티’라는 말을 쓰기 시작하면 이 말은 ‘자동차, 교통수단, 운송, 탈것, 이동 수단, 교통 체계’ 등을 모두 대신하여 공공언어에서 사용됩니다. 상업 광고에도 등장하고요. 그러다 보면 법률에까지 사용되어 어느새 법률 용어라는 지위를 얻게 되죠. 공무원들은 이 말을 적절한 우리말로 바꾸어 부르면 안 될 것

**《쉽표, 마침표》**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립국어원, 한글문화연대는 함께 ‘쉬운 우리말 쓰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외래 새말을 쉬운 우리말로 다듬어서 널리 퍼뜨리는 일인데, 어떤 사례가 있는지요?

**이건범** 일단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건 ‘키스 앤 라이드(Kiss & Ride)’예요. ‘케이앤드아르’(K&R)라고도 하죠. 언뜻 보아 무슨 뜻인지 짐작할 수 없는 이 표시는 기차 승객을 배웅하거나 마중하러 차를 몰고 왔을 때 잠깐 차를 세워 둘 수 있는 곳을 뜻해요. 국립국어원에서 ‘환승정차구역’으로 대안어를 내놓았는데 이미 전국 곳곳에 퍼져 버렸죠. 심지어 여주시 ‘세종대왕릉역’ 앞에도 ‘케이앤드아르’가 자리 잡고 있으니까요. 신분당선 동천역을 시작으로 한글문화연대와 대학생 동아리 ‘우리말 가꿈이’가 개선 운동을 펼쳐서 수도권 22개 역이 ‘환승정차구역’, ‘잠시정차구역’ 등 우리말 표기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2021년 중앙선 원주역에도 이 표시 공간이 계속 생겨나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사정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했어요. 이에 한국철도공사와 국가철도공단에서는 강릉역 등 18곳의 표기를 바꾸고 앞으로 우리말로 표시하기로 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누리집’을 꼽을 수 있는데요, 이 말은 비교적 널리 퍼져서 ‘홈페이지’를 대체하는 우리말로 자리 잡고 있죠. 그럼에도 아직 여러 공공기관에서 ‘홈페이지’를 쓰고 있어요. 시민들이 이것을 발견하고 우리 연대에 제보해 주시는 경우가 많아요. 해당 기관에 공문을 끈질기게 보낸 결과 전남도청, 여성가족부와 문화재청, 통계청, 기상청 등이 ‘홈페이지’에서 ‘누리집’으로 고쳤다는 답을 보내왔어요. 이렇게 여기저기서 누리집이라는 말을 쓰게 되면 파급 효과가 자연히 따르거든요. 개선 권고를 받지 않은 기관에서도 자진해서 누리집이라는 말을 사용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런 변화가 올해에도 계속되어 통일부를 시작으로 환경부, 국가보훈처 등 모두 29곳의 공공기관에서 ‘누리집’으로 고쳐 쓰고 있습니다. 가령 ‘홈페이지 이용 안내’가 아니라 ‘누리집 이용 안내’로 바뀌는 거죠. 이처럼 바꿔 달라고 말하고 행동하면 변화가 일어나요.



《**실험표, 마침표**》 작년에 ‘쉬운 우리말 사전’을 공개했다고 들었습니다.

**이건범** 앞서 언급했다시피 절반 넘는 정부 보도 자료에서 국어기본법을 어기고 있는 실정이에요. 여러 가지 개선책이 필요한데, 가장 시급한 건 일선 공무원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쉬운 우리말 검색 장치를 꼽을 수 있습니다. 이에 한글문화연대에서 국어 전문가와 일반 시민, 시인 등이 함께 1년에 걸쳐 ‘쉬운 우리말 사전’을 구축했어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온라인 사전으로 공개했죠. 쉬운 우리말 사전은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과 언론에서 자주 쓰는 외국어에 대해 쉬운 우리말 대체어를 제공합니다. 어려운 외국어를 대신할 새말 정보 자료는 달마다 추가되고요. 이 사전은 ‘쉬운 우리말을 쓰자’ 누리집에서 누구나 이용 가능합니다. 또한 공개 에이피아이(API) 형태로 내려받아서 각 공공기관의 누리집에 탑재하거나 대화 로봇 기능을 설치할 수 있어요. 공무원들과 공공기관 직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죠.

《**실험표, 마침표**》 ‘만화 표어 공모전’, ‘외국어 남용에 불편했던 이야기 수기, 영상 공모전’ 등 일반 국민의 참여를 독려하고자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계신데요, 관련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이 밖에 일반 국민이 우리말 사랑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 주시겠습니까?

**이건범** 작년에 처음으로 ‘외국어 남용에 불편했던 이야기 수기, 영상 공모전’을 열었죠. 올해는 2회 공모전이 진행되고 있고요.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모전이에요. 일상에서 어려운 공공언어를 접하고 불편했던 경험이 누구에게나 있으실 거예요. 이처럼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쉬운 우리말의 필요성을 공론화하는 것이 주요 목적이죠. 지난해 공모전 수기 분야에서는 공공언어를 국민에게 제공하는 공무원의 입장에서 노력했던 이야기가 으뜸상을 받았어요. 이외 세대 간 의사소통을 막는 외국어 남용에 대한 이야기, 혼란을 부채질하는 외국어 남용에 대한 이야기 등 일반 국민이 일상에서 보고 겪은 사례가 많이 접수되었습니다. 수상작은 매 분기마다 발행되는 ‘쉬운 우리말을 쓰자’ 소식지에 실어 전국 공무원이 볼 수 있도록 발송하고 있어요. 현재 2회 공모전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우리말을 사랑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으뜸상 상금이 200 만원이에요. 기자님도 한번 도전해 보시겠어요? (웃음)

한편 우리 한글문화연대에서 운영하는 ‘쉬운 우리말을 쓰자’ 누리집에서는 정부의 외국어 남용 때문에 불편해하는 국민의 제보를 받고 있어요. 제보를 받으면 우리 연대는 해당 기관에 바꿔 달라는 공문을 보냅니다. 국민 개인이 항의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죠. 공공기관이 어떤 용어를 쓰고 있는지, 어려운 외국어를 남용하고 있지 않은지, 주의 깊게 보시고 누리집에 제보해 주세요. 국민분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쉽표, 마침표》

한글문화연대의 앞날이 더욱 기대됩니다.

이건범

조금은 엉뚱하게 들릴지도 모르지만, 저는 거대한 한글탑을 세우겠다는 야망을 품고 있어요. 프랑스 파리의 에펠탑처럼 상징적인 기념비가 필요합니다. 각종 외래어가 범람하는 도심 속에 우뚝 서 있는 한글탑, 그 자체로 못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지 않을까요? (웃음) 일단 지금 하고 있는 일만으로도 너무 바빠서 새로운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에이아이, 에이에스에프(ASF) 같은 로마자 줄임말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정말이지 상황이 심각하거든요. 로마자 줄임말을 정부 공무원들과 언론에서 자주 사용하다 보면 분명히 공공 차원의 소통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우리말로 바꿀 수 있는 말은 모두 우리말로 바꾸어 한글로 적도록 애써야 소통이 편해져요. 연대는 앞으로도 공공언어 개선과 우리 말글 문화를 지키기 위해 온 힘을 쏟을 겁니다.

글/사진: 강은혜

《쉽표, 마침표》

댓글, 누리꾼, 누리집 등 성공적으로 우리 일상에 자리 잡아가고 있는 말들도 눈에 띄입니다.

이건범

‘누리집’도 처음에는 촌스럽다는 평이 많았어요. 저도 이 말을 처음 들었을 때 살짝 오싹했구요. 사용 권장을 적극적으로 시도했지만 예상대로 쉽게 퍼져 나가지 않았습니다. 쓰던 말이 아닌 새말인데다 외국어 신조어 대신 쓸 말로 뒤늦게 나온 말이니 아무래도 선입견이 생겨 버린 거죠. 그럼에도 쉬운 우리말 사용에 호감을 지닌 몇몇 공공기관에서 앞장서서 이 말들을 쓰자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불편한 신발도 신다 보면 익숙해져 편해지는 이치와 같아요. 자꾸만 우리 새말로 바뀌어서 말하고, 문서에도 써 보세요. 우리나라 공공언어가 쉽고 아름다워집니다.

# 우리말 풀기

## 문제 1

옷에 땀이 [ 배어 / 배여 ] 찹찹하다.

## 문제 2

그는 한물간 [ 떠버리 / 떠벌이 ] 역할로 무대에 섰다.

정답 찾기 Q

## 문제 3

그녀를 만나러 가기엔 시간이 너무 [ 발다 / 발트다 ].

정답 찾기 Q

## 문제 4

기운이 [ 달려 / 딸려 ] 일을 더 이상 못 하겠다.

정답 찾기 Q

## 문제 5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그들은 [ 안절부절했다 / 안절부절못했다 ].

정답 찾기 Q

## '우리말 풀기'에 참여하기

### 참여 방법

1. ['우리말 풀기'에 참여하기]를 눌러 주세요.
2. 문제를 풀고, 답을 적어 주세요.
3. 응모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적어 주세요.
4. '제출하기'를 눌러 주세요.

### 응모 기간

2022. 8. 9.~2022. 8. 22.

### 당첨자 발표

개인별로 알리고 《쉽표, 마침표》 2022년 9월 호에 공고함.

### 선물

당첨자 열 분께 커피 교환권을 드립니다.

## 2022년 7월 호 우리말 풀기 당첨자

김\*욱(8967)

양\*식(6097)

박\*영(0917)

장\*영(4164)

오\*엽(3583)

이\*수(7020)

유\*인(5951)

이\*제(7162)

조\*민(2475)

박\*미(9359)

# 우리말 풀기

## 문제 1

그 선수는 [ 고난이도 / 고난도 ] 동작을  
완벽하게 소화했다.

정답 찾기 Q

## 문제 2

잠이 덜 깬 형은 [ 흐리멍덩해서 / 흐리멍텅해서 ]  
아무 대답도 못 했다.

정답 찾기 Q

## 문제 3

이 노래가 요즘 아이들에게 가장 많이  
[ 불리는 / 불리우는 ] 노래이다.

정답 찾기 Q

## 문제 4

꽃샘추위에 [ 두터운 / 두꺼운 ] 옷을  
다시 꺼내 입었다.

정답 찾기 Q

## 문제 5

통행을 [ 삼가 / 삼가해 ] 주십시오.

정답 찾기 Q



## ‘우리말 풀기’에 참여하기



### 참여 방법

1. [‘우리말 풀기’에 참여하기]를 눌러 주세요.
2. 문제를 풀고, 답을 적어 주세요.
3. 응모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적어 주세요.
4. ‘제출하기’를 눌러 주세요.

### 응모 기간

2022. 8. 23. ~ 2022. 9. 5.

### 당첨자 발표

개인별로 알리고 《쉽표, 마침표》 2022년 9월 호에 공고함.

### 선물

당첨자 열 분께 커피 교환권을 드립니다.

## 2022년 7월 호 우리말 풀기 당첨자

김\*욱(8967)

양\*식(6097)

박\*영(0917)

장\*영(4164)

오\*엽(3583)

이\*수(7020)

유\*인(5951)

이\*제(7162)

조\*민(2475)

박\*미(9359)